

제9대 인천시의의회 개원... 의정활동 돌입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 다짐 단독 후보 허식 의원 의장 선출

새롭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 시의원 40명이 시민들 앞에 '화합과 통합으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을 다짐했다.

인천시의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인천시의의원 전원(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식 의정활동 첫 일정으로 의원들은 '제9대 인천시의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의원 전체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는 단독후보로 등록한 허식(63·국·동구) 의원이 40명 전원 출석에 39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또 제1부외장에는 이봉락(70·국·미추홀구3) 의원이 38표, 제2부외장에는 박종혁(57·민·부평구6) 의원이 36표로 선임됐다.

이어 오후에는 시의회 중앙홀 1층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제9대 인천시의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교육감, 전임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 회원,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의회 개원 기념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의회는 300만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구



인천시의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인천시의의원 전원(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인천시의의회)

로서 'All Ways Incheon! 육·해·공 모든 길은 인천으로!'란 인천 슬로건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조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 회원,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의회 개원 기념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의회는 300만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구

의 미래 먹거리 창출, 인천의 균형발전 견인 등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인천시의의회 개원을 감축드린다"며 "따뜻한 질책과 조언을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고 인천이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가진 교육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이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의회 의회 단신

김포시의회 호우피해 현장 행정 펼쳐

침수피해 발생 지역 방문

민선8기 첫날인 1일 김포시의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김포에는 13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해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이날 시청 관계부서와 함께 상습 침수지역인 통진읍 도사리 통진연립 일원을 비롯해 농수로 범람으로 농지가 상실된 고촌읍 태리, 산책로

가 파손된 나진교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이어 주민들로부터 피해현황을 청취한 뒤 복구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 의원은 "시민 곁에 깊게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앞으로 현장행정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동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대응과 관리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성삼 기자

인천 중구의회 임시회 열려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

인천 중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에 강후공 의원이 선출됐다.

중구의회는 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을 강후공(국민회) 의원을 선출했다. 강후공 의장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보다 성숙

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동준 부의장은 "우리 중구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든든한 가교가 돼 부의장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중구의회는 8일 개원식에 이어 12일부터 제30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활동 시작

"민생 살리는데 최선"

11대 의회 대표단 결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남종섭 대표의원, 용인4)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1

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해 헌화과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

참배에는 남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 안광률 정책위원장(시흥1),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

박세원 정무수석(화성3),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 김동영(남양주4), 김철진(안산7), 명제성(고양5), 신시숙(화성4), 오석규(의정부4), 이재영(부천3), 전석훈(성남3), 최민(광명2) 부대표 등 대표단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남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적고 11대 의회 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남 대표의원은 "여·야가 협치해 민생에 전념하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항상 기억하겠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창 기자

용인시장-성남시장 협력방안 모색

양 도시 교통 불편 해소

안철수 국회의원 동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저녁 국민회의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을,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용인과 성남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사람은 특히 두 도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노

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과 신상진 시장, 안철수 의원은 이날 분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에서 성남 대장동을 거쳐 수지·광교로 연장하는 과업을 꼭 실현하기로 하고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SRT 수지·분당 정차역을 신설하는 문제, 수지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연결하

는 다리의 확장 문제도 해결해서 두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휴일이면 교통체증이 심한 고기동과 대장동 연결 교량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의 교통불편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장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자"고 했고, 신 시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하자"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2일 안철수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두 도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근상 기자



제9대 시흥시의의회 의원들이 1일 오전 8시 논곡동 현충탑을 방문해 참배를 올리며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제9대 시흥시의의회 공식일정 돌입

16명 의원 현충탑 참배

제9대 시흥시의의회 의원들이 1일 오전 8시 논곡동 현충탑을 방문해 참배를 올리며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현충탑을 찾은 시의원들은 헌화·분향한 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며 57만 시흥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시흥시의의회는 가 선거구 김선옥·김찬심·안동의·이상훈 의원, 나 선거구 김진영·이건

섭 의원, 다 선거구 성훈창·송미희 의원, 라 선거구 박준호·오인열·윤석경 의원, 마 선거구 박소영·서명범·이봉관 의원 등 5개 선거구 14명과 비례대표 김수연·한지숙 의원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제9대 시흥시의의회는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근식 기자

의정활동 관련 기초의회

동두천시의의회 의장에 김승호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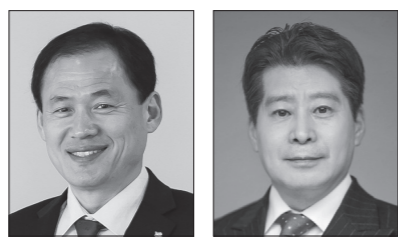
부의장 황주룡 의원 선출

제9대 동두천시의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의 김승호(국민회의, 가선거구)의원이, 부의장으로 조선인 황주룡(국민회의, 가선거구)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동두천시의의회는 1일,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회의인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임시회에 앞서 시의원 7명은 현충탑 참배로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동두천시의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먼저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는 총 7표 중, 김승호 의원이 4표, 박인범 의원이 3표를 얻어 과반수를 얻은 김승호 의원이 당선됐다. 이어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는 황



김승호 황주룡

주룡 의원이 4표를 얻어, 3표를 얻은 김재수 의원에 앞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제9대 전반기 동두천시의의회를 이끌게 된 김승호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첫째, 의회 위상을 더욱 높이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것. 둘째, 집행부와 연계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소통과 협치를 실현할 것. 셋째,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성대 기자

구리시의의회 의장에 권봉수 의원

부의장에 양경애 의원

제9대 구리시의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이 잠정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에 3선 의원인 권봉수(나 선거구)의원이, 부의장에 재선인 양경애(가 선거구)의원, 운영위원장에 신동화(가 선거구)3선위원이 맡게 된다.

구리시의의회는 4일 의장단을 선출한 후 오후 2시 제9대 구리시의의회 개원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장에 내정된 권봉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4·5대 의원을 거쳐 이번 9대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4대 2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구리시장 2016년, 2018년 구리시장에 비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느티나무포럼 대표. 부의장에 내정된 양경애 의원은 지난



권봉수 양경애

8대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후 이번 지선을 통해 가 선거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구지초등학교 자문위원.

운영위원장을 맡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은 6대, 7대를 거쳐 9대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구리시장에 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 인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형실 기자

광명시의의회 의장에 안성환 의원

부의장 구본신 의원 선출

제9대 광명시의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이 선출됐다.

안성환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9대 광명시의의회가 출발했다. 광명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광명시의의회 의원 중 유일한 3선의원으로서 제7대 광명시의의회 의원 및 제8대 광명시의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구 부의장은 "광명시의의회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



안성환 구본신

활동에 돌입했다.

안 의장은 개인사에서 "광명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질책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장-부의장 선출은 광명시의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뽑았다. 박웅석 기자